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AP: 7월 인플레 연율 2.6%로 변동 없어...핵심 물가는 2.9% 상승
- Bloomberg: 강한 인플레 불구하고, 소비자 지출은 탄탄해
- Bloomberg: 미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락...경제 전망 우려로
- Reuters: 7월에 미 무역적자 크게 상승
- Bloomberg: 연준 이사 Waller, "9월 금리 인하에 향후에도 인하 예상"
- Bloomberg: 이코노미스트들, "내년으로 가면서 미 성장 둔화, 계속되는 인플레" 전망

[무역 전쟁]

- Reuters: 미국의 압박으로 삼성, SK 등의 중국 내 반도체 제조 힘들어질 듯

[주택]

- Bloomberg: 미 모기지율, 소폭 하락...30년은 6.56%

[오일]

- Bloomberg: 유가 월간 하락세...공급 과잉 및 지정학적 요인 우려

[인공지능]

- WSJ: 알리바바, AI 칩 개발...중국의 엔비디아 공백 채운다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가정용품 가격 상승하고 있다
- WSJ: PepsiCo, 배터리 전기 대형 트럭 선도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AP: Key US inflation gauge holds mostly steady though core inflation ticks higher

7월 인플레 연율 2.6%로 변동 없어...핵심 물가는 2.9% 상승

-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수는 7월에 변동이 없었다. 그러나, 핵심 물가지수는 상승했다.
- 연방상무부의 오늘 금요일 발표에 따르면 개인소비지출(PCE) 물가지수는 작년 동월에 비해 2.6% 상승해 6월 연율과 같았으며,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PCE 핵심 물가지수는 7월에 연율 2.9%를 기록했다. 6월에는 2.8% 였다.
- 이 같은 수치는 연준의 많은 관리들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. 물론 물가는 3년 전 피크였던 7%대보다 훨씬 낮지만 여전히 연준의 2% 목표치보다 높은 상태다.

AP 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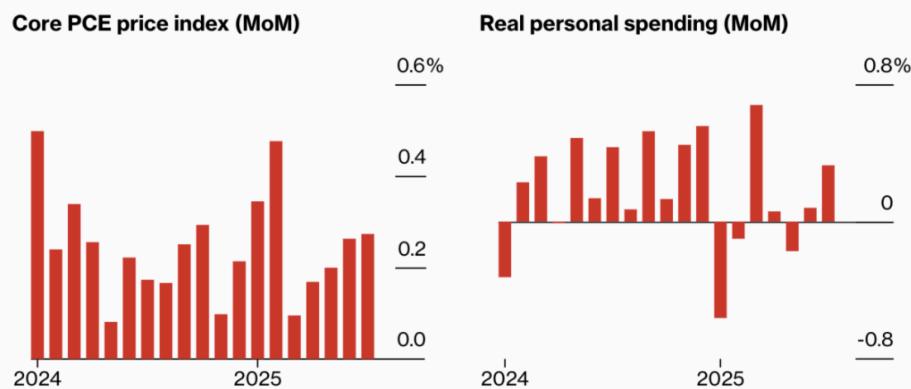
Bloomberg: US Consumer Spending Shows Resilience Despite Stubborn Inflation

강한 인플레 불구하고, 소비자 지출은 탄탄해

- 7월 미 소비자들의 지출은 4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였다. 고질적인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소비 수요는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향후 수개월간 제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지출은 계속되고 있다. 그러나 생활비가 오르고 일자리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견고한 소비 지출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.

US Consumer Remains Resilient Even as Prices Rise

Personal spending rose by the most in four months in July



Source: Bureau of Economic Analysis

Bloomberg 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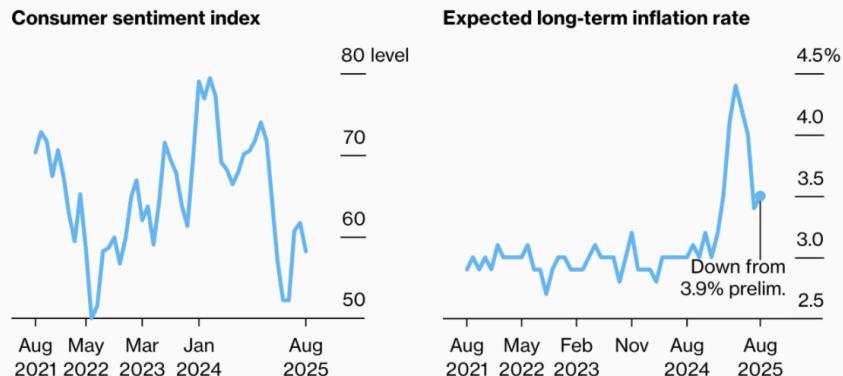
Bloomberg: US Consumer Sentiment Declines on Dimmer Views of Economic Outlook

미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...경제 전망 우려로

- 관세에 따른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와 지속적인 인플레로 미 소비자들의 신뢰지수가 지난 3개월동안 가장 떨어졌다.
- 오늘 금요일 미시간대 8월 최종 소비자 신뢰지수는 7월에 61.7에서 8월 들어 58.2로 줄었다.
- 소비자들은 내년에 물가가 연율 4.8%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지난달 연율 4.5%보다 물가 예상치가 높아졌다. 이들은 물가 비용이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3.5%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.

US Consumer Sentiment Retreats

Despite lingering inflation concerns, a long-run price gauge improved from earlier in the month



Source: University of Michigan

Note: Reflects average annual inflation over next five to 10 years

Bloomberg 기사

Reuters: US goods trade deficit widens sharply in July 7월에 미 무역적자 크게 상승

-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미 상품 무역적자는 7월에 크게 늘어났다. 이는 3분기에 무역이 미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.
- 지난달 상품 무역적자는 22.1% 상승한 1천36억 불로 나타났다고 연방 상무부는 오늘 금요일 밝혔다.
- 특히 상품 수입은 1백86억 증가한 2천8백15억 불이 되었다. 반면에 상품 수출은 1억불 축소해 1천7백80억 불로 나타났다.

Reuters 기사

Bloomberg: Fed's Waller Sees Quarter-Point Cut in September, Then More

연준 이사 Waller, “9월 금리 인하에 향후에도 인하 예상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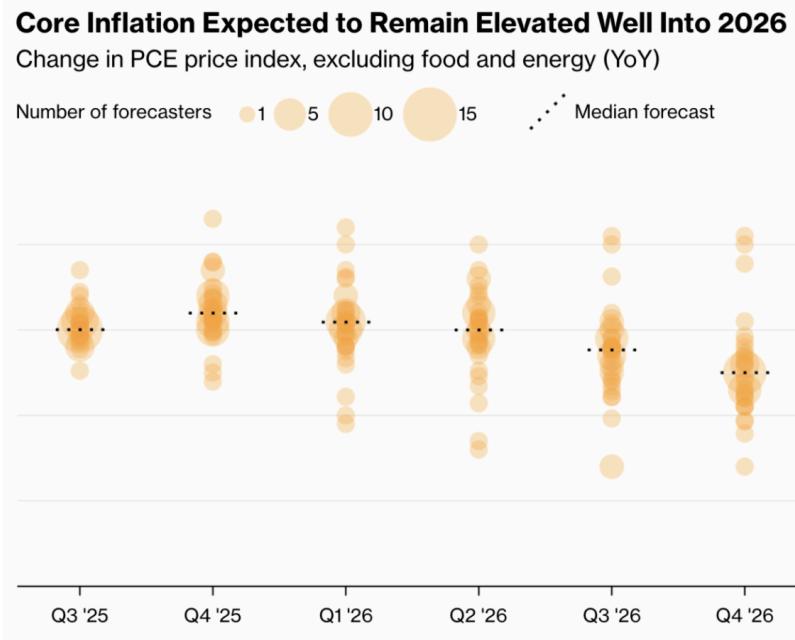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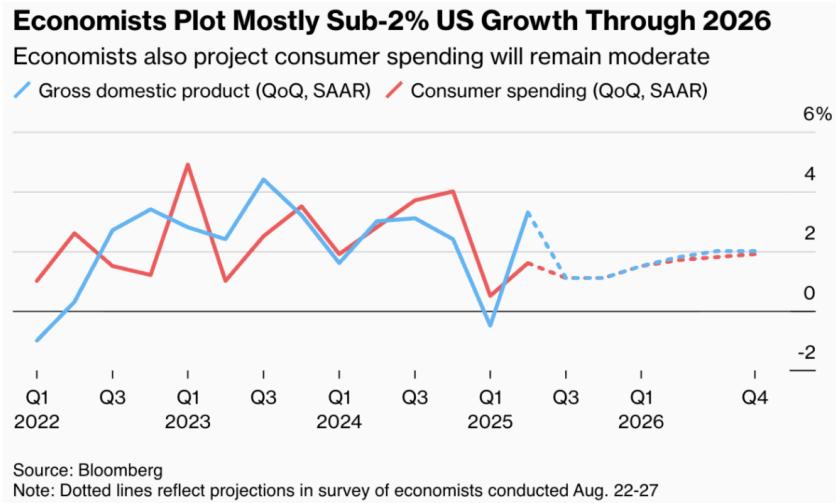
- 연준 이사인 Christopher Waller는 연준의 보다 낮은 금리를 요구하면서 자신은 9월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.
- 그는 또한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되며 인하 속도는 향후 경제지표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.
- 그는 노동시장의 바람직하지 않은 약세 가능성에 커지고 있는데 적절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준은 현재 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Economists See Slow US Growth, Stubborn Inflation Well Into 2026

이코노미스트들, “내년으로 가면서 미 성장 둔화, 계속되는 인플레” 전망

-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 접어들면서 미 경제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지속적인 인플레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.
- 미 경제의 엔진인 소비 지출은 올해 3, 4분기에 1.1%로 늘어나고 핵심 물가지수는 4분기에 평균 3.2%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.
- 실업율은 4분기와 내년 대부분의 기간동안 4.4%로 상승하겠지만 향후 12개월간 침체 가능성은 32%로 올해 3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.



Bloomberg 기사

[무역 전쟁]

Reuters: US to make it harder for Intel, SK Hynix and Samsung to make

chips in China

미국의 압박으로 삼성, SK 등의 중국 내 반도체 제조 힘들어 질 듯

- 미국은 삼성과 SK 하이닉스,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를 제한할 예정이다. 미 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입 허가를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.
- 당초에 연방상무부는 지난 2022년에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을 대대적으로 제한했는데 이 당시 이들 기업들에게 예외적으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해 장비 중국 도입을 허가했었다.
- 앞으로는 중국 내 생산을 위해 수입 라이센스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. 그동안에는 특별 허가로 라이센트 허가가 필요없었다.

Reuters 기사

[주택]

Bloomberg: Mortgage Rates Fall Slightly, Sending 30-Year Loans to

6.56%

미 모기지율, 소폭 하락... 30년은 6.56%

- 미국 모기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. Freddie Mac은 30년 고정 대출의 평균 금리가 지난주 6.58%에서 6.56%로 하락했다고 밝혔다.
- 7월 미국 재판매 주택 매매 계약 건수는 두 달 연속 감소하였고, 주택 매도자 수 또한 5월보다 약 14,000명 감소했다.
- 주택 구매자들은 높은 주택 가격 및 고금리로 주택 구매를 미루고 있으며, 이제는 매도자들도 적은 수요로 인해 매물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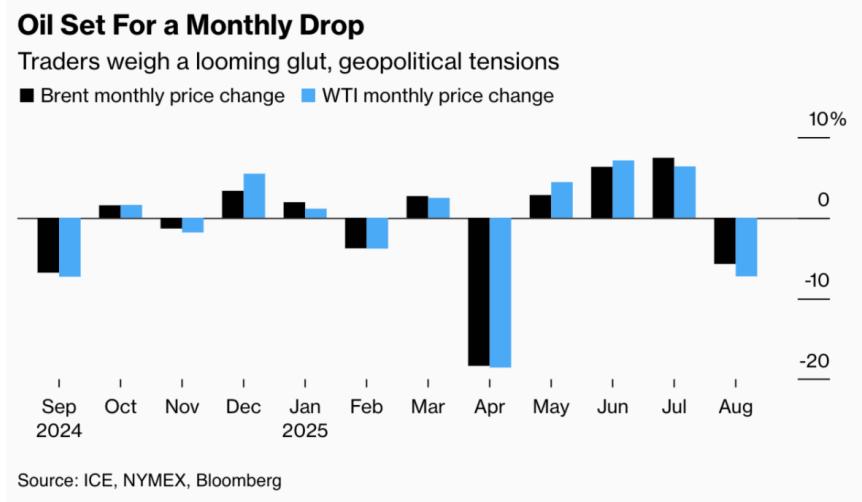
Bloomberg 기사

[오일]

Oil Heads for Monthly Loss as Traders Weigh Glut, Geopolitics

유가 월간 하락세 손실...공급 과잉 및 지정학적 요인 우려

- 유가가 공급 과잉 우려와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지정학적 요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월간 손실(하락세)을 보였다.
- 브렌트유는 배럴당 68달러 선까지 하락했고,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4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이달 7%가량 하락했다. 8월 들어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- Danske Bank의 전략 담당자 Naervig Pedersen은 “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 속 OPEC+의 증산으로 공급은 안정적이다”라며 “미국은 러시아 원유 구매국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”고 전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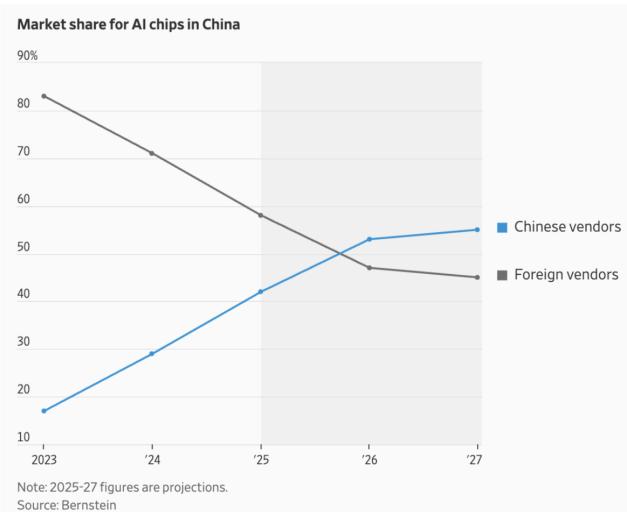


Bloomberg 기사

[인공지능]

WSJ: Alibaba Creates AI Chip to Help China Fill Nvidia Void 알리바바, AI 칩 개발...중국의 엔비디아 공백 채운다

- 중국 최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알리바바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규제 장벽에 부딪힌 이후에 생긴 공백을 메우고자 새로운 AI 칩을 개발했다.
- 중국 공장들이 미국의 칩 제조 기술 접근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, 엔비디아의 H20 칩을 대체할 제품을 개발하는 등 AI 역량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.
- 알리바바는 2분기 클라우드 매출이 26% 올랐다고 밝힌 바 있으며,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AI 모델 중 하나인 쿠wen(Qwen)을 갖고 있다.
- 그러나,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노후된 해외 기계와 성능이 낮은 국내 장비를 사용하는 공장들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Higher Prices Are Coming for Household Staples 가정용품 가격 상승하고 있다

- Hormel, Ace Hardware, J.M. Smucker 등 미국 회사들이 육류 가격, 관세 등의 다양한 이유로 소비재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.
- 월마트, 타켓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관세 관련 가격 인상이 일부 시행 중이라고 밝혔으며, 더 많은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있다.
- 7월 소매 다짐육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, 주요 재배 지역의 악천후로 인해 야채의 도매 가격은 작년 대비 약 16% 상승했다.
- 이로 인해 일부 소매업체는 가격을 인상하고 할인혜택을 줄이며 비용 증가를 완화하면서도 이익을 증가시키고 있다.
- 고물가에 지친 미국 소비자들은 외식이나 고기 구매를 자제하고 고가 품목 구매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.

WSJ 기사

WSJ: PepsiCo Charges Ahead with Battery-Electric Big Rigs PepsiCo, 배터리 전기 대형 트럭 선도

- PepsiCo가 Daimler Truck, 볼보 등 배터리 전기 트럭을 배송 운영에 사용 중인 가운데, 최근 배터리 전기 트럭 Tesla Semi의 라인업을 확장했다.
- 이에 관해 PepsiCo의 차량 엔지니어링 이사 Adam Buttgenbach는 소비자의 집 앞에 상품을 배달하는 'Last-Mile' 배송과 지역 배송에 이 전기 트럭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더 나아가, 많은 트럭 제조업체들이 더 빠른 충전 속도를 가능하도록 만들면서 장거리 노선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.
- 이들은 배터리 전기 트럭을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 총소유비용(TCO)를 살펴본다고 전했는데, 여기에는 초기비용, 에너지 및 유지 보수, 투입 비용이 포함된다.
- 디젤 차량과 비교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일부 부품의 가격이 더 비쌀 수는 있으나, 전기차의 규모가 커지게 될 경우 일부 비용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.
- PepsiCo는 이러한 물류 운영 전략이 자사에게 이점을 가져다주며, 지역사회와 지역에 더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.

WSJ 기사

[보고서]

'트럼프 임명' 연준 이사 "앞으로 3~6개월간 금리 인하 예상" "고용 사정 악화하면 내달 '빅컷' 지지할 수도"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 이사가 향후 3~6개월간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.

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8일(현지시간) 마이애미 경제클럽 연설문에서 노동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.

월러 이사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에서 "오늘 내가 아는 것에 기반해 25bp(1bp=0.01%)의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...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